



이 한

- 전북 완산고등학교 졸업
- 전북대학교 정치사회학부 사회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6회)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중

I. 들어가며

먼저, 존경하는 법조 선배님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考試界』에 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한 씨, 이것저것 열심히 산 건 알겠는데, 3년 내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로스쿨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격을 위해 망설이지 않고 “네!”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돌이켜보니 그리 간단한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지친 나를 꾸준히 책상 앞에 앉히기 위해서는 절제되고 효율적인 생활이 요구됐고, 앞에 놓인 책에 몰입하기 위해선 늘어난 관심사와 생각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하여 익히고 외워야할 정보의 절대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어내지 않으면, 10년을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다.”라는 마음을 되풀이 하면서,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과 합격에 대한 불안으로 늘 고통 받았지만 항상 괴롭고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북돋아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느꼈고, 주말에 영화 한편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치열한 일상을 보내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미성숙한 삶의 태도와 허황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태워내듯 없앨 수 있어서 제 인생으로서도 값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기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할 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낙방을 한 후 얼마 동안은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인터넷을 황망히 찾아 헤맸습니다. 저의 부족하고 어설픈 공부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자못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유용한 것을 취사선택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남깁니다.

II. 어제를 돌아보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춘기의 성장통을 심하게 앓았고 제도권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과 계열 학생으로 한창 수학·과학을 공부해야 할 때에 백일장에 나가서 상을 받고, 교내 가요제에 나가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를 의아하게 보시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적성과 관심사를 찾기 위해 좌충우돌하다가 2010년 주한미군 증원요원(KATUSA)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우수 대학 출신의 영민한 동료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자극을 많이 받았고, 제 스스로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인과 교류하고 어려운 이에게 도움을 주길 좋아하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관계가 가능한 일,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

춘 진로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변호사로 진로를 정하여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일 때가 많았고, 배움과 연구는 좋아하지만 암기와 시험 자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로스쿨에 온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습니다. 로스쿨 시절에는 좋은 동료들과의 소중한 기억들도 많지만, 인간관계와 공부에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저 나름의 노력이 무색하게 비법학사가 흔히 행하는 시행착오로써, '숲'을 못 보고 지엽적인 '나무'에만 몰입하는 잘못을 3년 내내 저질렀고 사례형 답안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택형과 기록형은 점수가 그럭저럭 나오지만, 사례형이 매우 저조한 점수를 보이는 괴상한 점수 분포로 불합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불합격으로 인한 충격으로 힘들었지만, 그 해 여름부터 큰 누나 가족과 생활하게 되면서 큰 누나가 잘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조카의 재롱으로 수험생활의 고독함과 괴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본교 로스쿨 본관의 신축공사로 열람실이 없어졌고, 신림동으로 가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어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큰 무리 없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먼지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고, 환기가 안 되는 난방으로 매우 건조하였습니다. 가벼운 감

기로 시작했던 것이 만성 부비동염으로 발전하여, 두통과 열 등, 각종 증세로 시험 두 달 전부터 시달려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1년 간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합격의 기대를 걸어보면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시험 D-1,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가기 힘들게 느껴 참고 공부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으나 긴 진료 끝에 '스트레스성'이라는 허무한 진단을 들어야 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지만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아 문자 그대로 눈물을 쏟으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결과를 보니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낙방을 하였습니다. 전날 소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첫 날 첫 시험의 공법 선택형 점수가 평소보다 확연히 낮게 나와 불합격이 더욱 뼈아팠습니다. 친한 변호사 선배님이 '사람이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넘어졌으면 주위에 뭐라도 잡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절치부심하여 시험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을 보는 내내 큰 무리 없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 집중해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시험과목이었던 국제거래법이 너무 어려워 시험을 푸는 내내 등에서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시험을 마치고 나와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주룩 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그리하여 합격자 발표일까지 긴 시간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8회 시험 발표일에 영화관에서 3시간의 긴 영화를 보는 듯 마는 듯 시간을 보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법무부 홈페이지의 에러로 마음 졸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PC방으로 가서 결과를 담담한 마음으로 확인하였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셔서 좋았으나,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더 지배적이었고, 친한 지인들의 불합격 소식이 속속 들려오면서 그들이 느낄 고통에 마음이 많이 슬퍼졌습니다.

Ⅲ. 나의 변호사시험 준비

1. 시험계획과 일상관리

모든 과목에서 볼 책을 미리 정하여 5회독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공부순서는 지난 시험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약한 과목들 먼저 배치하여 초반에 산뜻한 기분으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8회 시험을 마치고 다이어리를 확인해보니, 선택형 공부는 5회독을 넘겼고, 사례형은 대체로 4회독 정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년의 열정은 365일 분의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이라고 생각하여, 공부가 잘 된다고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운이 없다고 나태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그 전날 저녁에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은 일요일 저녁에 차분히 정리하였습니다.

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와 몸이 안 좋을 때의 공부 시작과 끝 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그대로 맞춰서 실행했더니 큰 슬럼프 없이,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이 수험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2. 선택형 준비

직전 시험에서 헌법 선택형에서 저득점을 하였기에 두꺼운 책으로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은 강성민 변호사님이 쓰신 ‘헌법 선택형 연습, 변호사시험·사법시험 진도별 기출문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인쇄출판의 ‘UNION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로 보았습니다. 누적된 기출문제가 너무 많기에 양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집은 문제를 푸다는 생각보다는 판례와 조문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와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회독 시, 문제를 꼼꼼히 읽고 틀린 것은 ‘正’자 표시, 헛갈리거나 정확히 모르는 경우, ‘正’자 표시, ② 2회독 및 3회독 시, 체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 확실히 맞추면 표시를 지우고, 틀리면 正’자를 더해가고, ③ 4회독 시 正’자 중 3번 이상 체크된 것 위주로 문제를 풀고, 오선지든 정선지든 줄을 그은 부분만 읽으면 완벽한 문장이 되도록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5회독 및 그 이상의 회독에서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지문만 읽고 넘어갔습니다.

막판에 틀린 것만 한글과일로 타자로 친 후 시험장에 가져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지책으로 모든 문제집을 인쇄집에 맡겨서 스프링으로 제본하였습니다. 그리

고 볼 필요가 없는 페이지는 찢어내어 버렸더니, 책의 분량이 2/3 정도로 줄어들었고, 한 페이지에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지문은 많아야 2~3줄 정도로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험 전날에 1회독을 하기에 무리가 없었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의 말씀대로 선택형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니 관련 사례형 준비와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8회 시험 사례형 공법 1문 헌법 부분, 2문의 행정법 부분 그리고 민사 3문이 비교적 생소한 출제여서 당황했지만, 객관식으로 암기한 지식을 채워 넣었더니 선방 또는 고득점 할 수 있었습니다.

3. 사례형 준비

(1) 일반론

중요하거나 자신 없는 과목과 문제 유형의 경우, 시간을 잡아서 손으로 직접 썼던 것이 시간 관리, 분량 조절과 답안 구성 연습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한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고득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득점자의 답안을 구해서 벤치마킹하고, 출제 교수님들께서 직접 채점해주는 모습을 보고(어떻게 채점하시는 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첨삭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점 교수님이 답안지 수 십장을 지루하게 채점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점수를 편안하게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득점에 유리한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법과 민사법의 민법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I. 쟁점, II. 학술·판례·검토, IV. 사안의 경우’의 방식으로 작성하면서도, 분량에 따라 목차를 유연하게 구성하

였습니다. 학원가 답안과 모의고사 답안을 보면, 창의성이 발휘되는 답안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력이 매우 출중한 분들에게나 유효한 방식이고, 채점 교수님들께선 아직 위 방식에 익숙해져있으므로, 과거 사법시험 목차형식이 아직 더 안전하고 답안 분량을 확보하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헌법, 형사소송법, 상법의 경우, 일반 서술에 있어서 과장을 보태서 “글씨연습을 하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기계적이고 신속하게 작성하여야 다른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며 기세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고 모든 문제 풀이의 시작은 법조문이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 조문 명과 번호를 적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조문을 찾고 있으면 시간에 굉장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주말에 쉬면서 남은 시간에 모든 기출문제집을 확인하여 출제된 적이 있는 조문만 따로 정리하여 ‘기출 조문집’을 만들었고, 중요조문 옆에 관련 판례 두문자도 같이 적어 여러 번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법조문이 특히 강조되는 형사법과 절차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집을 보는 방식 역시, 선택형 문제집을 푸는 방식과 동일하게, 1회독 시에는 문제 전부를 풀면서 모르거나 헛갈리는 문제에 ‘正’자를 표시하고 이후에는 그 부분만 보는 방식으로 양을 줄여 갔습니다.

(2) 헌법

선동주 강사님의 ‘헌법집중 핸드북’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비는 쟁점이나, 설명이 부

족한 쟁점의 경우 차강진 강사님의 ‘Work-Book’과 김유향 변호사님의 ‘헌법 핵심정리 300’의 일반 서술 부분을 참조하여, 이른바 단권화를 하여 빈틈을 줄였습니다.

사례집의 경우, 각 사례집의 문제 풀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인쇄출판의 ‘UNION 변호사시험 대비 사례형 기출문제집’의 진도에 따라, 차강진 강사님의 ‘Work Book’을 참조하면서 읽었습니다.

헌법도 8회 시험까지는 상당 배점을 전형적인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 적법요건과 기본권의 일반 서술의 경우, 두문자를 따서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망설임 없이 적고 나올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3) 행정법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은 매우 좋은 책이었고, 인쇄출판의 ‘UNION 변호사시험 대비 사례형 기출문제집’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내용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서술이 아쉬운 부분은 시중의 다른 사례형 기출문제집을 참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제4회 이후부터는, bin출 및 중요쟁점을 일부러 피해서 출제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고, 사법시험과 법원 행시 기출문제 쟁점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UNION 문제집에 첨부된 위 기출들도 추가적으로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4) 형법

이인규 강사님의 ‘캡슐 형법’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시중의 각 형법 기출사례

집 역시, 포섭·적용하는 법조문과 판례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쇄출판의 'UNION 변호사시험 대비 사례형 기출문제집'에 다른 모든 기출 문제집과 비교·대조하면서 읽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의 죄책을 논하라.”는 50~60점짜리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배점에다가 쟁점이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뒷 문제들을 풀 시간이 없어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채점 기준표와 고득점자의 답안을 참고하여 메모법과 답안 방식을 고민하였고, 변호사시험 기출을 시간을 정하여 풀어가면서 나만의 답안을 굳혀갔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김영환 강사님의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사례연습'만 보았습니다. 관련 고등고시를 망라하여 쟁점을 다루고 유형 별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시험 대비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모든 사례형 과목 중에 형소법이 가장 예측 가능하게 출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해 동안, 전통적인 중요쟁점에 최신 판례 문제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쓰기 때문에, ① 조문 적시, ② 목차 전개 암기 ③ 판례문구를 두문자로 확실히 암기하는 식으로, 논리의 빈틈을 줄이고 시간을 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6) 민 법

윤동환 강사님의 '민법 핸드북'과 곽낙규 강사님의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사례연습'을

보았는데, 두 책 모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민사소송법

윤동환 강사님의 '핵심 민사소송법의 맥'과 김남훈 변호사님의 민사소송법 사례 핸드북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나름 자신이 있어서 가벼운 책을 선택한 것이지만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8) 상 법

문갑서원의 'KEYWORD 상법'을 기본으로 장원석 변호사님의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사례연습'을 보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워드 상법은 출제 가능한 사례형 쟁점이 콤팩트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있으면서도 가독성이 좋아서 초반 공부는 물론 막판 정리용으로도 사용하기에 좋았고, 8회 시험 3문과 같이 생소한 쟁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변사기의 경우, 관련 쟁점을 잘 정리하여 반복하여 학습하기 좋고, 목차 정리에 용이하였습니다.

(9) 선택법 - 국제거래법

인해 출판의 'UNION 기출 문제집'의 앞 부분의 일반 서술 정리부분과 조문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으나 특히 최신 4개년의 변호사시험 기출은 시간을 정해서 모두 직접 손으로 쓰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안의 형식은 안강현 교수님의 '국제거래법' 교과서 맨 뒤의 부록의 기출 모범답안의 목차와 포섭방식을 참고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중요한 쟁점과 조문 그룹에서 한정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기출표시를 하여 중요조문과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구체적으로 국제사법 1문의 경우, 전년도 중요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서 출제되는 방식이어서 출제되는 쟁점을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거래법 2문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조문과 논리 전개에 따른 조문 그룹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쓸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좋았습니다.

4. 기록형

공법은 강성민 변호사님의 ‘공법기록 엮기스’, 형사법은 노수환 교수님의 ‘핵심 형사기록’, 민사법은 요건사실론과 시중의 기출 답안을 전부 확인하였고, 보통 공부를 하기 싫은 때인 일요일 오후에 1개씩 풀고 꼼꼼히 스스로 침묵하고 모범답안과 비교했습니다. 오답노트와 자주 쓰이는 일반서술을 준비하여 시험 직전에 훑어 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덧붙여, 세 유형 모두 자신만의 확고한 메모법이 정해져 있어야 시험장에서 혼란이 적습니다.

IV. 도움이 되실까 싶어 보태는 말

1. 가치관의 재정립 - 모든 판단의 기준: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변호사시험 합격은 모든 수험생에게 지상제 1과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를 포함하여, 꽤 많은 분들이 합격 이외의 가치를 마음에 두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전공, 가치관과 진로가 어떻게 되든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인생이 더욱 괴로워질 확률이 높아지며 나를 지

원하는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치·사회, 로스쿨과 변시 제도 등과 같이 거시적 문제부터 소소한 인간관계와 관심사와 같이 미시적인 것까지, 나의 합격과 관련된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끊어내는 단호한 마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에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불합격의 근본적인 원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생각과 절박함에만 매달렸던 저의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변호사시험 합격’이 되었습니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을 제 모든 생각과 생활에 대입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보는 책과 공부 스케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활습관, 수면시간, 식사와 간식 메뉴, 적절한 휴식 시간·방법, 평소 무심결에 드는 생각 등 모든 것에 적용하여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비정하게 느껴지지만, 대인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보내는 이 시간이 시험에 도움이 되는가?”도 고민하여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같이 스터디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고 도리어 서로의 공부에 해가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도 상대방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대화의 화제를 공부와 관련된 쪽으로 유도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 생활은 합격에 절박하게 변하게 되나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게 되고, 시험 합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차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수험생활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담을 떨친다기보다는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수험기간 전반을 보내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햇살과 바람 좋은 날에 산책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꼈고, 열람실 앞 새끼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을 때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면 음악을 듣거나 기도문을 외면서 불안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행하는 자극적인 활동과 여가 생활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방향을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 컨디션과 수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불필요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로 성당을 가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부님의 강론을 들으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보곤 하였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극에 달하면 미사 중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기도에 매달리다보면 다시 일주일의 이겨내는 힘을 얻고 나왔습니다. 성당을 마친 토요일 저녁에 맛있는 별식을 사서 집에서 먹고, TV와 유튜브의 예능 프로그램을 몰아보면서 한바탕 웃고 긴장을 풀면 한 주 어치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풀리는 듯 했고, 신나는 음악을 크게 틀

어놓고 주말에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면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결국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과 운동, 공부 계획과 이행으로 조절해야 했습니다. 즉, “공부의 스트레스는 공부로 풀어야 한다.”라는 수험가의 말에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3. 암기카드 작성과 구비

손바닥보다 작은 암기카드를 과목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보았던 것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카드의 양이 늘어나거나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하고, 잘 안 외워지는 것과 자주 틀리는 것 위주로 정리하여 과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사례 논리체계(목차 순서), ② 조문 판례 및 그 두문자, ③ 법전협 모의고사의 오답 내용 위주로 적었습니다. 암기카드의 적은 지면에 핵심적인 내용만을 적어야 해서 압축하는 과정에 저절로 공부와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암기카드의 크기가 작아서 어딜 가든 휴대하였습니다. 식사할 때, 화장실 갈 때, 산책할 때 틈틈이 읽고 외워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장에도 가지고 가서 시험에 유력하게 나올 것 같아 3M 플래그로 표시해둔 부분만 시험 시작 직전에 읽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스스로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고 오히려 약하게 느껴서 적었던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어 자

신감도 붙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력 쟁점으로 암기카드에 적었던 내용 여러 개가 8회 시험에도 출제되어, 민법과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서머리 노트나 암기장을 준비해야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께, 작성과 암기의 부담이 적은 소형 암기카드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4. 판례 음성 녹음 듣기

최신 3개년 이내의 판례는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고, 특히, 헌법과 형사법 최신판례는 선택형 뿐 만 아니라, 사례형 및 기록형의 쟁점으로도 빈번히 출제되고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만 보기에라도 시간이 빠듯하고, 최신 판례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원 홈페이지의 무료강의를 활용했습니다. 김유향, 이용배, 윤동환 강사님의 헌법, 형사법 및 민사법 최신판례 강의를 1회독한 후에 음성만 녹음을 하여 출퇴근 차안에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시험을 앞둔 100일 정도에는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들었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차안에서도 들으면서 잡념을 가라앉혔습니다. 모든 음성파일은 10번 이상씩 들었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과 주요 문구가 선명히 기억에 남았고, 시험에도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하여 답을 용이하고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V. 글을 마치며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과 같이, 저와 같은 범재(凡才)가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변호사가 되었기에, 세상에 보탬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홍동규는 수험기간 내내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공도영, 김수빈, 김영호, 김용원, 김은비, 김진호, 문지영, 신가영, 오지현, 안정기, 원성욱, 이동구, 이서영, 이정현, 이성관, 이별찬, 정유환, 정혜인, 조경채, 조재범, 진효, 최윤희 친구님, 형님, 누님은 좋은 결과를 맺도록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산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된 후 저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석근 교수님, 김형국 교수님, 이승희 실장님께 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내색은 안하지만 항상 마음을 써주고 공부에 큰 도움을 주셨던 박상우 법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느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경을 변호사님은 저에게 친형처럼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도희, 김경돈, 김수원, 김주영, 김정환, 박민정, 오동환, 이청규 변호사님께서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공부할 동력을 주셨던 감사한 은인이십니다. 자신의 삶도 바쁠 텐데 동료의 합격을 바라며 마음을 써주신 구

현진, 권영실, 김경희, 김기훈, 김정원, 김해림, 김한빛, 백호영, 이학주, 장재익, 최대일 변호사님께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험의 막막하고 어두운 터널 속을 함께 걸어준 권승현, 김정환, 박정윤, 오슬기, 최경환 변호사님 덕분에 고된 수험생활을 그나마 즐겁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모어 형제자매님들과 동고동락했던 열람실원 박주원 형님, 백상아, 황순영, 송도희, 오소현 그리고 시험장까지 함께 했던 스터디원이자 전우(戰友)였던 김민혜, 천송인, 홍수진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성규 지도교수님께서서는 로스쿨 시절 내내 따뜻한, 때론 엄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제 성과의 주역이시자 제 합격을 저보다 더 기뻐해주셨던 추신영 교수님과 김학기 원장님, 박수영, 송기춘 교수님께서서는 제가 좌절하여 바닥에 가까운 자존감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일으키고 다독여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은사님이십니다. 신양균 교수님, 신지혜 교수님, 이혼재 교수님, 조기영 교수님, 한상국 교수님께서서는 저에게 합격으로 이르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조인으로써의 꿈의 씨앗을 뿌려주신 태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졸업생임에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호영 박사님, 청소와 마음을 써주신 여사님께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긴 수험 생활동안 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신 백승운 비오 신부님, 유승현 마리오 신부님, 박태여 실바노 수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의 두 번째 시험이 실패이지만 비극으로 남지 않고 금방 다시 털고 일어 날수 있었던 것은 큰 누나, 큰 매형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정예원과의 추억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누나는 치의학박사와 신인학술상을 성취하는 등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저를 세심히 챙겨주셨고 작은 매형과 조카 김주완과의 즐거운 시간이 숨 막히는 수험생활에 꿀같은 휴식과 같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명기 카타리나님, 조원정 마리아님께 마음깊은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할머니, 할머니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한, 인생은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명심해!” 살아온 날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 시험 불합격의 고통, 개인적 고충과 현실적 제약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응원하고 일으키는 분들,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견뎌낸 고마운 나 덕분에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수기를 작성하면서 수험생활을 반추하니, 다음 시험을 준비하며 고단하고 간절할 하루를 보냈을 동료, 친구 수험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늘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성취할 시간이 다가오니,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이 시간을 버텨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